60돌 관음종, 태허 조사 '전법 정신' 되새긴다

10월 24일 탑골공원서 기념법회
'거리 전법' 태허 조사 유훈 선양
"인류애 · 문화창달 메시지 전달"
16일 총본산서 종단 60년사 봉정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이 종단 60년사를 봉정하고 있다.

올해 창종 60주년을 맞은 관음종이 개산조 태허 조사의 '전법 정신'을 되새기고 유훈을 선양하기 위한 대법회를 연다.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10월 16일 총본사 서울 종로 낙산묘각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종 60주년 기념법회 계획을 발표했다.

'겨레와 함께한 60년, 인류와 함께할 60년'을 표어로 진행되는 관음종 창종 60주년 기념법회는 10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 총무원장 법명 스님과 종단 주요 소임자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일한불교협의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 스리랑카불교 부종정 나람바나아웨 아난다 스님 등 해외불교 지도자들도 법회에 참석해 관음종 창종 60돌을 축하할 예정이다.

관음종이 총본산 낙산묘각사가 아닌 종로 탑골공원에서 기념 법석을 여는 이유는 태허 조사의 전법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기 위함이다.

조계종 선암사 경운 원기 선사의 문하로 출가해 득도한 태허 조사는 경북 백화산에서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운융창을 발원하며 6년 동안 고행을 했다. 한국전쟁 중 서울이 수복되자 상경해 참상을 목도하고 대중교화에 나섰다.

수행자로서 선방에만 앉아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태허 조사는 후학들에게 "우리 수행자는 일반 신도나 속인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설파하며 대중교화에 나섰다. 1958년부터 2년 동안 매일 오전 10시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종로3가 파고다 공원에서 거리 설법을 했다. 그 이후에는 전국 오일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전했다.

이번 기념법회는 위민안락과 불법(佛法)홍포를 위해 거리에 나서 부처님 법을 전했던 태허 조사의 정신을 널리 전하고 문화를 통한 사회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법석이 될 예정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음종 부원장 도각 스님은 "종로 탑골공원은 만해 한용운 스님을 비롯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민족의 성소이자 관음종 개산조 태허 조사가 2년 동안 거리 설법을 설한 성지"라면서 "사람으로 치면 환갑의 나이가 된 종단이 조사 스님의 정신을 되새기고 나아갈 길을 선포하는 법석의 장소로 탑골공원만한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종 50주년을 맞아 관음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노동자들의 유해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다. 60주년을 맞아서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전법의 초점을 맞추려 한다"면서 "이번 법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인류애와 문화창달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 간담회에 앞서 관음종은 이날 오전 '태허 조사 탄신 12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관음종 60년사〉를 부처님과 태허 조사에게 봉정했다. 〈관음종 60년사〉에는 태허 조사의 행장과 60년 동안 이뤄진 종단 발전 과정, 현황을 담았다.

조계종, 11기 국제교류위원 위촉

10월 14일, 위원 10명…임기 2년
진우 스님 "한국불교 세계화 앞장"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국제 종책과 불교 교류 분야 자문을 담당할 제11기 국제교류위원회를 구성했다. 해외포교 경험이 풍부한 스님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국제 교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4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제11기 국제교류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다.

국제교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사회부장 진성 스님과 당연직 위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을 비롯해 해외특별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중앙종회의원), 국제전법단장 문종 스님, 마음치유학교장 혜민 스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경완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장 대행 원걸 스님,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자헌 스님, 해외특별교구 자문위원 혜운 스님(일본 조동종)으로 구성됐다.

진우 스님은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수행 중심의 종교로 전법과 포교에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은 국제 교류와 연대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대다. 한국불교 세계화는 종단이 이끌어야 할 주요 과제인 만큼 위원회가 그 역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10기 환경위 출범…"자비로 환경 정화"

진우 스님, 16일 위원 19명 위촉
3년 임기…불교 환경 종책 마련



사찰수행 환경 보존과 현대사회 생태·환경 등 현안에 불교적 대안 마련을 이끌 조계종 10기 환경위원회가 출범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6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10기 환경위원회 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생태 및 자연환경, 기후위기, 환경법, 폐기물, 산림복지, 환경교육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인 총무원 사회부장 진성 스님과 해인사 사회국장 무진 스님, 통도사 사회국장 정원 스님을 비롯해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중앙종회의원) △울산 신흥사 주지 인경 스님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조계중 순천대 산림자원조경학부 교수 △조시경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설동근 숲생태지도자협회 이사장 △신대윤 조선대 명예교수 △오창길 자연의 벗 소장 △정규원 숲산사 대표이사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 연구소장 △최윤호 백두대간연구소장이 위촉장을 받았다. 임기는 3년이다.

진우 스님은 "환경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라며 "불교는 본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종교로, 지금까지 산사와 사찰림이 잘 보존돼 있는 것은 스님들이 오랜 세월 불상생과 조화·공존의 마음으로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환경은 물리적 차원뿐 아니라 마음의 환경까지 포함된다"며 "자리이타 정신에 입각한 자비와 상생의 마음으로 마음과 세상을 정화하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진각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이어 대내적으로는 사찰수행 환경을 잘 보존하고 대외로는 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소년·청년 출가자 증가 "특수성 고려한 수계교육 필요"

출가장려특위, 제6차 회의
출가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교구별 출가학교 운영 현황도



매년 소년·청년 출가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수계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장려를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범 스님, 이하 출가장려특위)는 10월 14일 서울 룸비니빌딩 5층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출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위원장 정범 스님과 위원 상원·법해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등 위원 9명 중 5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부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소년·청년 수계자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제64기 사미·사미니 교육에서는 사미 10명·사미니 3명, 제65기에서는 사미 8명·사미니 2명이 수계했다. 이어 2024년 제66기에서는 사미 12명·사미니 5명, 제67기에서는 사미 14명·사미니 3명, 2025년 제68기에서는 사미 16명·사미니 1명, 제69기에서는 사미 23명·사미니 2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년 출가자의 경우 행자교육 면제로 바로 기본교육기관에 입교하면서 대중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의 법적 수업일 이수를 병행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위원 스님들은 현실을 반영한 소년·청년 출가자 수계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장 정범 스님은 "소년 출가자는 행자교육을 면제받아 기본교육기관에 입교하지만, 이미 행자교육을 마친 40~50대 출가자들과 함께 지내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소년 출가의 행자교육을 면제하는 특별법과 현장의 현실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년·청년·중년·은퇴출가 등으로 나눠 세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습의사 등 인력 운영의 문제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출가를 결심한 소년들은 늘고 있는데, 이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현실적인 교육 시스템이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법해 스님은 "일부 소년 출가자들이 동국대 진학만을 목표로 삼는 경우도 있어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문제도 분명 존재한다"며 "이들에게 사명감과 원력, 자존감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원 스님은 "정책을 세우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며 "습의사 스님들과의 소통 자리가 더 많아져야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각 교구별 출가학교 운영 현황을 공유했으며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 수정, 세대별 출가자를 위한 전문행자교육원 설치, 외국인 행자 확대 방안 등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내영 기자

眞際大禪師 2025 경주 APEC 성공기원 대법회

이제 세계가 禪의 진수를 알아 화평해질지어다

일시 2025년 10월 25일(토) 오전 10시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해운정사



대한불교조계종 제 13 ·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대선사께서 경주 APEC 성공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의 밝은 미래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법회를 엽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산 해운정사 대법당에서 진리의 주장자를 높이 드나니 그 가르침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동참하시어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향상향하자재용
向上向下自在用 하야사
향상구와 향하구의 진리를 자재하게 써야사

천상인간무등필
天上人間無等匹 이로다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짝할 자가 없음이로다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정사에서 펼쳐지는 경주 APEC 성공기원 대법회에 함께하십시오.

주최 I 대한불교조계종 해운정사 주관 I 대한불교조계종 해운정사 후원 I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문의 I 051-746-2256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 40-6